# 50대 43명·20대 1명…무소속 36명 18대의 2배

■ 4·11 총선 광주·전남 후보자 분석

## 전과·병역면제 많고 20억 이상 재산가 11명

지난 22~23일 4·11총선 후보 등록 결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무소속 후보자의 홍수 속에 여성 후보의 품귀 현상이 나타났다.

민주화의 고향답게 민주화운동 등으로 전과를 기록하거나 병역을 면제받은 후보가 다수였으며,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한 재력가도 11명이나 됐다.

◇**정당별·연령대별 분포**=광주·전남지역에서 8개 정당이 48명의 후보를 냈고, 무소속은 36명이었다. 정당별로 민주통합당이 17명으로 가장 많은 후보를 냈고 이어 통합진보당 15명, 새누리당 10명, 정통민주당이 2명의 후보를 각각 등록시켰다. 자유선진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민주통일당이 각 1명씩 후보를 냈다.

연령대는 50대가 43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60대가 20명, 40대가 17명으로 뒤를 이었다. 70대는 3명, 20대가 1명이었다. 최고령자는 무안·신안에 출마한 73세의 무소속 한화갑 후보였고, 최연소 후보는 29세의 광주 동구에 출마한 통합진보당 김관희 후보였다.

◇**무소속 후보 많아**=광주 15명, 전남 21명 등 모두 36명이 무소속 후보였다. 이는 소선거구제가 시행됐던 지난 1985년 제12대 총선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무소속 후보는 제18대 18명, 17대 20명, 16대 33명, 15대 23명, 14대 22명, 13대 9명이었다. 이같이 무소속 후보가 급증한 것은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지역 공천이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못했다는 비판 때문에 반발이 큰 탓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무소속 당선자는 18대에 때 강운태(광주 남구)·박지원(목포)·이윤석(무안·신안)·김영록(해남·진도·완도) 후보 등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여성 후보 희귀**=여성후보는 광주 4명, 전남 2명 등 모두 6명에 그쳐 전체 84명의 7.1%에 불과했다. 통합진보당은 총 4명(21.0%)이 등록해 지역구 여성할당 목표인 20%를 넘겼으나 민주당은 단 1명(5.2%)에 그쳐 15% 목표에 못 미쳤다.

광주·전남지역의 여성 국회의원으로는 제9대 김윤덕(광산·나주), 제16대 김경천(광주 동구) 의원이 있었으며 17대 국회 이후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전과**=18명(21.4%)이 전과자로 5명에 1명꼴로 전과기록이 있었다. 자유선진당 구봉우 후보(광주 동구)는 공문서 위조, 민주당 박지원 후보(목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민주당 이윤석 후보(무안·신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무소속 한화갑 후보(무안·신안)는 정치자금법 위반, 새누리당 김중대 후보(여수갑)는 식품위생법 위반, 무소속 박종옥 후보(여수을)는 공직선거법 위반, 무소속 김현옥 후보(광양·구례)는 정치자금법 위반, 통합진보당 박형기 후보(장흥·강진·영암)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각각 전과기록을 갖고 있었다.

이외 상당수 후보는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집시법 등의 전과를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군 미필자는 여성후보 6명을 뺀 78명 중 15명(19.2%)에 달했다. 광주가 22명 가운데 9명이, 전남은 41명 중 6명이 군복무를 하지 않았다.

구봉우(광주 동구)후보는 생계곤란으로 소집면제됐다고 신고했으며 박동수(광주 동구)·송갑석(광주 서갑)·서대석(광주 서을)·강기정(광주 북갑)·장원섭(광주 광산갑)·김철근(고흥·보성) 후보는 수형으로 면제됐다.

정호(광주 서갑)·이민원(광주 남구)·문종안(나주·화순)·김현옥(광양·구례)·유인학(장흥·강진·영암) 후보는 질병으로 면제됐다. 이채언(광주 북갑) 후보는 입영기피 등을 거쳐 신체허약으로 보충역 편입 후 고도근시로 병역에서 면제됐다. 김충조(여수갑)·한화갑(무안·신안) 후보는 입영 기피 후 고령 등으로 병역의무가 종료됐다고 신고했다.

◇**재산·납세**=최고 재력가는 나주·화순의 무소속 최인기 후보로 86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최후보는 예금액 21억6000만원을 비롯한 주식 37억8000만원과 토지·건물 등 23억원대 부동산 등을 보유했다. 이어 광주 남구의 장병완 후보가 79억300만원, 여수을 주승용 후보 46억9000만원을 신고해 2,3위에 각각 랭크됐다.

조영택(광주 서갑, 37억2000만원)·임내현(광주 북을, 31억7000만원)·민병록(해남·진도·완도, 27억2000만원)·황주홍(장흥·영암·강진, 23억6000만원)·유인학(장흥·영암·강진, 23억1000만원)·우윤근(광양·구례, 22억8000만원)·박주선(광주 동구, 20억7000만원)·정남준(광주 남구, 20억6000만원) 후보도 재력가 반열에 포함됐다.

광주 동구의 박동수 후보는 은행권 채무 등으로 재산이 마이너스 2700만원, 고흥·보성의 무소속 김범태 후보는 마이너스 4300만원이라고 밝혔다. 광주 북을의 윤민호 후보는 94만원, 광주 서갑의 성용재 후보는 재산이 한 푼도 없다고 각각 신고했다.

변호사인 임내현 후보는 5억48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 납세 1위를 차지했고 장병완(2억300만원)·주승용(1억3900만원)·최인기(1억1800만원)·우윤근(1억800만원) 후보 등도 1억 이상의 고액 납세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07~2011년 사이 4명의 후보가 체납 기록을 남겼다. 광주 북을 김재균 후보가 1억2200만원, 광주 동구 구봉우 후보도 74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또 여수을 박종옥 후보가 7100만원을 나주·화순 배기운 후보가 31만원을 각각 체납했다. 단, 이들은 세금을 모두 완납, 현재 체납액은 없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정당별 후보 등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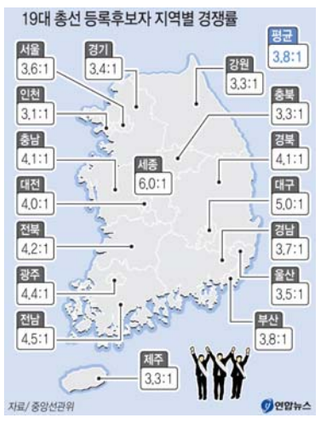
| 구분 | 새누리당 | 민주통합당 | 자유선진당 | 통합진보당 | 창조한국당 | 정통민주당 | 진보신당 | 민주통일당 | 무소속 | 계 |
|---|---|---|---|---|---|---|---|---|---|---|
| 광주 | 2 | 6 | 1 | 8 | 0 | 2 | 1 | 0 | 15 | 35 |
| 전남 | 8 | 11 | 0 | 7 | 1 | 0 | 0 | 1 | 21 | 49 |
| 합계 | 10 | 17 | 1 | 15 | 1 | 2 | 1 | 1 | 36 | 84 |

■ 연령별 등록 현황

| 구분 | 70대이상 | 60대 | 50대 | 40대 | 30대 | 20대 | 계 |
|---|---|---|---|---|---|---|---|
| 광주 | 0 | 9 | 16 | 9 | 0 | 1 | 35 |
| 전남 | 3 | 11 | 27 | 8 | 0 | 0 | 49 |
| 합계 | 3 | 20 | 43 | 17 | 0 | 1 | 84 |

■ 재산 신고 현황

| 구분 | 30억원이상 | 20억원~30억원미만 | 10억원~20억원미만 | 5억원~10억원미만 | 1억원~5억원미만 | 1억원미만 | 계 |
|---|---|---|---|---|---|---|---|
| 광주 | 3 | 2 | 6 | 6 | 10 | 8 | 35 |
| 전남 | 2 | 4 | 12 | 16 | 9 | 6 | 49 |
| 합계 | 5 | 6 | 18 | 22 | 19 | 14 | 84 |



票 주고 싶은 생각 뚝 떨어진다

## 1번 새누리당·2번 민주통합당

### 총선 후보자 기호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1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했다.

지역구 후보자의 공통기호는 현재 국회 의석수에 따라 제1당인 새누리당이 1번을 배정받은 데 이어 민주통합당 2번, 자유선진당 3번, 통합진보당 4번, 창조한국당은 5번을 각각 부여받았다. 의석이 없는 경우 순위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이다.

무소속 후보들은 관할 선관위에서 추첨을 통해 6번 이후부터 번호를 부여받는다.

또 비례대표 후보를 낸 20개 정당의 기호 역시 1번부터 5번까지는 지역구와 동일하며 그 뒤로는 국민생각이 6번, 정통민주당이 15번, 진보신당이 16번을 각각 배정받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전남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 배용태 전남부지사 112억 재력가

## 광주 35%·전남 65%가 재산 불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3일 공개한 2012년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명세에 따르면, 광주·전남 고위 공직자 가운데서는 배용태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112억8000여만원으로 최고 재력가에 이름을 올렸다.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도 재산이 늘었고, 재산 총액에서도 광역단체장 가운데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 광주 평균 7억6천만원

◇**광주**=강운태 광주시장은 배우자 명의의 현금 12억2000여만원과 예금 7억7000여만원 등을 추가 신고, 전체 신고액이 19억1800만원에서 39억93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병록 행정부시장과 강계두 경제부시장은 각각 11억6000만원과 10억6600만원을 신고했다. 윤봉근 시의회 의장이 신고한 재산은 3억4400만원이다.

광주시 공개대상 34명의 평균 재산은 7억6000여만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2명이 재산을 늘렸다. 1인당 평균 증가액은 1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의원 26명의 평균 재산은 5억6000만원으로, 14명이 늘었고 12명은 줄었다. 특히 은행권과 개인 빚 등 채무가 20억4000만원에 달했던 정현애 의원은 법원의 파산면책으로 20억여원을 일시에 탕감받아 재산이 플러스(1억8800만원)로 돌아섰다. 시의원 중에선 진선기 의원이 20억2300만원으로 최고 재산가였으며, 임동호(16억9300만원), 나종천(14억8900만원), 이은방 의원(14억5300만원) 순이었다.

구청장 가운데서는 김종식 서구청장이 28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2억원 상당의 지역개발공채가 눈길을 끌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12억8900만원, 유태명 동구청장은 7억3200만원,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3억6400만원, 최영호 남구청장은 7200만으로 각각 신고했다. 최 남구청장은 지난해 재산이 4500만원에서 2600만원이 늘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지난해보다 1500만원 늘어난 3억6800만원으로 나타났다.

### 전남 평균 11억여원

◇**전남**=전남지역 공개대상 공직자 공개대상 82명의 평균 재산규모는 11억여원으로 집계됐다. 10명중 7명꼴인 53명(65%)이 재산을 불렸다.

박준영 전남지사의 재산총액은 24억2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9800만원이 늘었다. 지난해에도 4억6700만원이 느는 등 2년째 4억원대의 재산 증가를 보였다.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의 예금이 11억49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배용태 행정부지사는 지난해보다 1억8200만원이 증가한 112억7000만원을 신고했다. 전국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 2003명 중 4위였다. 아파트와 미국 뉴욕 오피스텔 등을 비롯해 46억원대의 건물, 13억원대 토지 등을 보유했다. 본인과 배우자 등 예금이 37억원, 주식 등 유가증권 규모도 28억원2500만원에 달했다.

정순남 경제부지사는 7억1000만원을, 구충곤 전남도립대학장은 7억2000만원을 신고했다. 최종만 광양경제자유구역청장은 7억4900만원이었다.

도의원은 공개한 57명 가운데 34명의 재산이 늘었으며 23명은 감소했다. 이호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1억3000여만원이 감소한 25억1300만원을 신고했다. 도의원 중 최고 재산가는 57억9000여만원을 신고한 임명규 의원이었으며, 명현관(50억5600만원), 서옥기(41억2300만원) 의원 등 20억원이 넘는 재력가도 7명에 달했다.

시장·군수 22명 가운데 최고 재산가는 기업을 경영했던 임성훈 나주시장으로 80억4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임 시장은 작년보다 1억6900만원이 감소했다.

김충석 여수시장은 33억800만원, 김종식 완도군수 28억2000만원, 정종득 목포시장은 22억700만원, 김일태 영암군수는 17억73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홍이식 화순군수는 1억66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재산이 증가한 단체장은 3억2000여만원이 불어난 김일태 군수 등 13명, 감소한 경우는 6명이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7500만원이 증가한 4억7800만원을 신고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채용 공고

가.모집부문 (신입 및 경력직)

| 모집부문 | 모집인원 | 응시자격 | 모집전형 | 비고 |
|---|---|---|---|---|
| 건축,토목,안전,기계설비,전기 | 00명 |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 1차서류 2차면접 | 공동주택 공사현장 |

나.제출서류
■(당사)입사지원서
(다운로드www.moa21.co.kr→회사소개→인사정보)
■자기(경력)소개서
■졸업(예정)증명서
■자격증사본,경력증명서(해당자에한함)
※근면 성실하고 적극적이며 지속근무 가능한자 우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제출방법 : 우편(택배)접수(이메일·팩스 접수받지 않습니다)
(주소 : 광주시 북구 중흥동 323-5 총무팀)
■접수기간 : 20012년4월6일(금)17 : 00까지(마감)

라. 기타 문의사항은 총무팀(☎062-606-101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모아주택산업
혜 림 건 설(주)

못받은 돈!!
합법적으로 받아드립니다

| 채권의 유형 | 대상 채권 |
|---|---|
| 상거래 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
| 매매 채권 | 부동산, 동산, 준부동산 |
| 금전소비대차 채권 | 대여금, 투자금, 약정금, 곗돈 등 |
| 임차권 채권 | 주택, 상가, 차량, 중기 등의 사용료 대여료, 보증금 |
| 임금 채권 | 급여(정규, 일용) |
| 가사 |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부양 |
| 구상권 | 보증인 구상, 신원보증 구상, 변제구상(제3자) |
| 기타 | 저작권, 부당이득, 형사 합의금, 기타 |

차용증, 지불각서 상담
광주지사 영업사원 모집 062-606-9006
순천지점 영업사원 모집 061-722-1930
솔로몬신용정보
대표전화 062)606-9006
영업팀장 (문채준) 010-5311-0086



공무원 대 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1. 대상 - 현직공무원, 기능직, 교직원, 군무원
2. 한도 - 300~7000만원
3. 금리 - 연~5.9%미만 (천만원당 月5만원미만)
4. 기간 - 1년~10년 중 선택 (본인선택, 연장가능)
❖과다대출, 연체(등급미달)자도 가능!!
❖고금리 대출 사용자 → 저금리 대출로 전환
❖개인회생자, 신용불량자 → 100~500만원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한도는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부 제 644호)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회 기록서비스 • 개인신용정보관리 철저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 대출금액 | 2백만~5천만원(무보증/무담보/무조회)
◆ 대출금리 | 년 6%정도(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대출기간 | 1년 ~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과다대출 | 연체(등급미달)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적용 선순위 대출시세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년 5%~7.5%(은행금융권) / 후순위 - 월1.2%~3%
국민금융 (대부 제 642호)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